

# 노령견 다복이의 마지막 순간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팅커벨 프로젝트에서 도움을 준 유기견들 가운데에서 다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는 두 마리입니다. 그 중 한 강아지가 지난 호에서 소개해드린 후지 장애인 다복이었지요. 이번 호에서는 또 다른 다복이, 성남시 보호소에서 구조한 노령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복이가 구조된 것은 팅커벨 프로젝트가 지금처럼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기 이전, 아니 팅커벨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기도 전인 2013년 4월이었습니다. 현재 팅커벨 프로젝트의 대표인 황동열 대표님이 개인 유기견 구조자로 활동하면서 팅커벨 프로젝트의 온라인 카페 개설을 준비하던 때였지요. 당시 대표님은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하면서 어느 공설보호소의 입양 담당자 분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담당자로부터 안타까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호소는 운영권 문제로 곧 폐쇄될 예정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보호소가 문을 닫으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안락사를 당한다는 거예요. 저도 남아 있는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모두 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들 중 한 마리라도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대표님이 그 분의 부탁으로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 폐쇄가 임박한 그곳은 을씨년스럽고 어수선했습니다. 강아지들도 뭔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걸까요. 남아 있던 강아지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케이지에 갇혀 방문자를 응시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아이들 모두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지금처럼 단체와 회원들이 있는 것도, 입양센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 구조자인 대표님이 많은 강아지들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의 생각은 한 마리만이라도 구조하지는 것이었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두 마리의 강아지를 구하자고 결심한 것이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하지만 간절하고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저 생명들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없었던 대표님은 보호소 입양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도저히 못 고르겠네요. 담당자님께서 정해 주시면 그 아이들로 데려갈게요.”

생사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팅커벨 프로젝트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구조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도 대표님은 공설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 생명을 살린다는 기쁨보다 사지에 남겨놓아야 하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저 또한 대표님과 함께 공설보호소에 강아지를 구하러 갔을 때, 남아 있는 강아지들의 눈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제 발 끝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시간을 견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대표님은 담당자가 선택한 두 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보호소를 나왔습니다.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믹스견 콩이와 추정 나이 13세의 믹스견 다복이가 그 아이들입니다. 담당자는 다복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저희 보호소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나 되었어요. 차마 안락사를 시킬 수 없어서 우리 직원 중 한 사람이 입양 형식으로 살려놓긴 했지만, 1년 반 동안 케이지 생활을 하면서 바깥 공기 한 번 못 췌어본 가엾은 아이예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남은 시간이 길진 않겠지요. 그래도 사는 동안,

좋은 가족에게 사랑도 받아보고 산책도 실컷 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렇게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그날 대표님이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두 아이 중 어린 콩이는  
대표님의 친형님 덕으로 입양을 갔지만, 나이가 많은 다복이는  
금방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사설 보호소인  
‘행복한 강아지들의 집(행강집)’의 행강대부님에게 다복이의 입  
시보호를 부탁드렸고, 다복이는 행강대부님의 배려로 보호소  
가 아닌 행강대부님의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은 한 대학생 남매로부터 다복이를 입  
양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매는 안성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강아지를 너무나  
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저씨, 새벽에 죄송해요. 다복이가 숨을 안 쉬어요. 잠을 자  
다가 객객거리서 깨우려고 했는데 여섯 번 정도 숨을 몰아쉬더  
니 그 뒤로 숨을 안 쉬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복이처럼  
착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동생과  
상의해서 내일 다복이를 화장하기로 했어요. 다복이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잘 지켜주고 올게요. 저희에게 다복이를 보내주  
셔서 감사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햇빛 한  
번, 바람 한 번 못 맞  
아보고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던  
다복이. 다복이가 보  
호소 케이지에 웅크  
려 있던 그 시간은,  
다복이가 입양을 가서  
사랑을 받았던 시간보  
다 더 깁니다. 그래도 다  
복이는 마지막 순간, 버림받  
고 간혀 지냈던 시간이 아닌 가  
족과 함께 했던 시간을 마음에 품고  
갔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평생 외로웠겠  
지만, 언니 오빠가 곁을 지킨 마지막 순  
간만큼은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다복이는 하  
늘나라에서 신나게 뛰어 놀고 있겠  
지요. 🐾

①



②  
③



“아저씨가 인터넷에 쓰신 다복이 사연을 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복이가 얼마나 살진 모르지만 다복이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입양자인 대학생 남매는 첫 통화 때 이야기한 것처럼  
다복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고 대표님에게 간간히 다복이  
의 안부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남매가 보내주는 사진 속의 다  
복이는 행복하게, 평범한 반려견으로서의 삶을 한껏 누리고 있  
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복이가 입양 간 지 1년이 조금 넘는 2014년 9월의  
어느 새벽, 대표님은 대학생 남매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 ① 공설보호소 시절의 다복이
- ② 행강대부님과 함께 지내던 시절의 다복이
- ③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반려견으로 살았던 다복이